제8강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함

(1교시) J_Jgjin03_040105_04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1924~1998)

◎ 아름다움과 숭고함

리오타르는 현대 예술의 주요한 미적 범주가 숭고에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 예술에서는 숭고와 미를 자주 혼동해왔다. 이는 칸트도 마찬가지이고 헤겔에 이르면 숭고는 미의 한 아종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근대의 '아름다움'이란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의 조화에 그 본질이 있다. 우리의 인식적 파악 능력에 적합하게 생긴 대상이나 형태는 아름답다. 즉 美는 인간이 척도가 되는 것이다.

숭고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숭고는 우리의 지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범위에 맞닥뜨렸을 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 두려움, 공포, 충격이자 **인간을 압도하는 수학적 크기나 역학적 힘**이다.
이때 숭고는 흔히 쾌와 불쾌가 혼합된 모순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무한히 큰 어떤 것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해 좌절을 느끼는 불쾌감과, 그것을 마침내 극복했을 때 얻어지는 쾌감이 바로 그것이다. (ex 극지 탐험)

www.artnstudy.com

(2교시) J_Jgjin03_040105_05

◎ 칸트의 숭고 개념

◆ 수학적 숭고

인간은 감성이라고 하는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지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를테면 커다란 파도나 절벽과 같은 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숭고이다. 이는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쾌감이 들지만 동시에 **이성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때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이 감각에만 매여있는 존재에서 이성적 존재로 고양되며, 이 때 쾌감이 발생한다.

즉 수학적 숭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어떤 것으로서 인간 감성으로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능력인 이성이 들어가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인간 능력에 대한 위대함을 역설한다.

◆ 역학적 숭고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생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고 충동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타고난 존재로서 자연적 존재인 짐승과 구별된다. 칸트의 이중 왕국 비유에 따르면, 필연성의 왕국에 있는 한 인간도 하나의 생물에 불과하지만 다른 한편 자유의 왕국에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필연성의 세계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자연이 인간을 이기게 되어 있지만, **자연이 아무리 강하고 인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것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인간 주체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것이다.

◎ 바넷 뉴먼의 등장과 숭고 미학

2차대전 후 뉴먼은 유럽 미술의 전통-19세기까지의 전통회화 뿐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유산까지-과 단절하기 위해 '미'를 거부하고 '숭고'를 전면에 내걸며 숭고 미학을 전략적으로 내세운다.

뉴먼은 서구회화의 역사를 '미의 관념과 숭고의 열망 사이의 투쟁'으로 요약한다. 서구예술의 고질적인 문제는 절대자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려는 욕망(숭고)을 완전한 창조의 절대성(미)과 혼동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 조형 예술이 대표적이다.

뉴먼에게서 새로운 미학의 단초를 찾은 리오타르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숭고 이론을 토대로 뉴먼의 숭고 미학 이론을 받아들여 숭고론을 완성,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 범주에 넓게 적용한다. 이로써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잊혀졌던 숭고의 미학이 부활한다.

www.artnstudy.com

(3교시) J_Jgjin03_040105_06

◎ 바넷 뉴먼의 작품 세계

「하나임 I」1948

뉴먼의 회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수직선(zip)은 여러 문화에서 초자연적인 가르침으로 해석되며, 이는 그가 추구하는 열광으로 유도한다.

숭고의 효과를 위해 뉴먼은 거대한 포맷을 사용했고 관람자로 하여금 거대한 그림을 그 앞에 바짝 붙어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뉴먼의 그림 앞에 선 관찰자는 압도되며 열광에 빠진다. 뉴먼의 **"열광"**은 전통적인 숭고의 감정, 즉 고양과 격동의 감정을 가리킨다.

그의 캔버스는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의 형태로 실현되나,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체험은 뜨거운 열광이다.

◆ 형식의 추상성, 사유의 추상성

형식적으로 보면 뉴먼의 작품은 추상에 속하지만 형식주의와는 사실 관계가 없다. 뉴먼에게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 뉴먼의 작품 형식의 추상성은 사유의 추상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뉴먼의 추상은 관찰자를 성스러운 장소로 옮겨놓는 역할을 한다.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성스런 장소에 있게 된다. 이 장소를 '마콤'이라 부른다.

◆ 숭고의 부정적 묘사

콘트라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숭고를 묘사하려고 했던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뉴먼은 화폭을 지움으로써 숭고를 실천한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의 묘사를 아예 포기함으로써 언어나 그림으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숭고를 위한 이 미니멀리즘의 실천을 리오타르는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 부른다. 현대 예술은 묘사를 포기함으로써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증언한다.

◆ 새로운 것(the new)과 지금(the now)

'새로운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이라는 모더니즘의 강령은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리오타르는 자본주의 경제에는 숭고한 면이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움의 제스처일 뿐이다. 리오타르는 '새로운' 것만으로는 안되고,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존재 체험이 함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오타르 이론의 한계는, 숭고와 함께 양 기둥을 이루는 시뮬라크르를 제외하고 **숭고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현대 예술의 흐름 전체를 포괄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